

##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이 상 은\*  
(숭실대학교)

이 은 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 찬 미  
(숭실대학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산 가치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일부 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이 없거나 적은 자산을 가진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반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Datt & Ravallion(1992)의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자산액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 두 연도간의 빈곤율 격차는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분배적 요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산빈곤 변화에 있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 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용어: 자산 빈곤, 소득 빈곤, 요인분해, 성장, 분배, 불평등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7-B00398). 또한 이 논문의 일부분이 2011년 9월 3~4일 부산에서 개최된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이상은, 숭실대학교(salee@ssu.ac.kr)

■ 투고일: 2011.7.31 ■ 수정일: 2011.9.15 ■ 게재확정일: 2011.9.22

## I. 서론

우리나라는 IMF 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간 부동산과 주식 가격 등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산가치의 급등은 불로 소득의 문제와 재산 증가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자산가치의 증가가 전체 사회구성원들 간에 고르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발생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축소와 관련된 논란은 자산가치의 증가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계층 간 갈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의 일부 고자산 계층의 자산급증에만 집중되어 왔을 뿐 자산이 없거나 적은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자산이 적은 계층들의 경우 아마도 지난 10여 년 간의 부동산 및 주식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구 자산이 증가되었을 수 있다 (trickle-down effects).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자산 획득이 어려워지고, IMF 위기 이후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자산 구매능력이 저하되어 오히려 자산 규모가 감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자산 빈곤의 추세와 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빈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개 소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소득의 불평등과 빈곤 추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적 지출 능력을 소득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가구의 재정적 안정 정도를 보다 잘 설명 해 주는 자산을 소득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획득된 경제적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transitory) 성격을 가지며 변화가 크다. 이에 비해 자산은 보다 영속적(permanent)이며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제적 지출능력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산에 의하여 보다 잘 대변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은 개인의 실제 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자산은 개인이 소득단절이나 질병 등의 위기에 직면할 때 안전망을 제공 해 주고, 교육이나 창업 등 미래를 위한 도전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 분포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이태진 외, 2005; 강성민 2007; 남상호, 2007; 남상호, 2009; 석상훈 2010). 그러나 이들 연구도 특정 연도에서 횡단적으로 자산빈곤을 보거나 또는 자산빈곤의 요인을 분석하여 개별가구의 자산빈곤탈출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들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시적으로 자산빈곤의 전반적 추이와 그 요인을 분해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산빈곤의 전반적 추세를 살펴보고 자산빈곤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기존문헌연구

우리나라에서 자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권순원 외, 1992; 이정우·이성림, 2001; 김진영, 2002; 남상호, 2007; 남상호, 2008; 전승훈·임병인, 2008). 권순원 외(1992)는 1988년 전국 5,107가구를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자산의 지니계수가 각각 0.404와 0.579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정우·이성림(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 패널자료(1993~1998)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1993년 0.571로부터 1998년 0.655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1997년 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의 부채급증과 부유층의 부동산 보유증가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남상호(2007)는 노동패널 1999~2004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총자산 중 부동산의 점유 비중이 크고, 소득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전승훈·임병인(2008)은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가계 자산 구성에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또한 차입에 의한 자산 보유가구가 증가되면서 자산불평등도는 오히려 2000년에 비하여 2006년에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산의 불평등에 대한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자산불평등의 정도가 소득불평등의 정도에 비하여 높고, 자산의 구성에서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자산불평등도가 1998년까지 심화되어오다가 2000년대에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는 자산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에 Haveman & Wolff(2001)와 Caner & Wolff(2004) 등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Haveman & Wolff(2001)은 자산빈곤(asset poverty)을 한 가구의 자산유형의 자원(wealth-type resources)에 대한 접근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육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을 구체적으로 자산액이 소득 빈곤선 수준의 3개월 분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미국에서 1983년부터 1998년까지의 자산빈곤의 전체적 추세를 추계하고 또한 하위집단별 자산빈곤의 추세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 전반적인 자산 수준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의 수준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aner & Wolff(2004)도 자산빈곤선을 소득 빈곤선의 3개월치 수준으로 설정하고 1984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산빈곤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 빈곤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자산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대졸 학력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기혼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낮은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나 독신 노인 등의 경우 자산빈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자산빈곤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이태진 외(2005)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산빈곤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가구 자산의 중위값의 50%로 자산빈곤선을 설정한 경우, 순자산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2.4%가 자산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7)은 한국노동패널 1999년과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9년의 경우 27.5% 그리고 2004년도 자료의 경우 28.8%가 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월세 거주일수록, 가족 구성원 중 아동 또는 노인이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2009)는 한국복지패널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계층의 자산보유 불평등도와 자산보유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절대 빈곤층의 계층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금융자산 및 주택자산을 보유할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2007)과 석상훈(2010)은 자산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강성민(2007)

은 한국노동패널 1999년에서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선을 자산 중위값의 50%로 설정하여 자산빈곤에서의 탈출가능성과 자산빈곤으로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을 축적한 노인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 가구일수록 자산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석상훈(2010)은 한국복지패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자산빈곤 결정요인과 자산빈곤 유입 및 탈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상태일수록, 광역시 이하 거주자일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고, 탈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자산빈곤의 규모만을 제시하거나 개별 가구들의 자산빈곤 가능성 결정요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산빈곤의 추세에 대한 종합적 그림을 제시하고, 자산빈곤의 변화 요인을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우리나라에서 자산빈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는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 패널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그리고 가계자산조사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가 존재한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 패널자료(이후 대우패널로 호칭)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조사된 전국적 대표표집의 패널자료로서 가구의 자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 전후의 자산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이정우 외, 2001; 김진영, 2002). 그러나 이 자료는 199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 최초로 조사된 후 이후 5년마다 재조사를 하여 1996년 그리고 2000년에 재조사된 후 가계조사에 통합되어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그 중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가구의 자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자산자료만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태진(2000)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도의 자산빈곤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가계자산조사는 우리나라에서의 자산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2006년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자산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자료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현재까지 2006년 자산자료만을 포함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승훈 외(2008)는 가계자산조사 2006년 자료와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과 2006년간에 자산불평등 정도를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조사에서 자산항목의 조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비교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자료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가구들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자료로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가구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왔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중반까지의 자산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남상호, 2007; 남상호, 2008; 강성민, 2007).

이와 같이 자료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자산빈곤의 추세를 과거부터 분석할 수 있는 단일의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의 자산빈곤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의 자산빈곤의 추세를 분석하고, 1999년과 2008년간의 자산빈곤의 변화를 요인분해해 보고자 한다.

## 2. 자산빈곤의 측정

자산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변수, 자산빈곤선, 그리고 자산빈곤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자산변수를 정의하여야 한다. 자산 변수는 몇 가지의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Haveman & Wolff(2001)은 자산 변수로 순자산, 순자산 - 주거자산, 유동자산의 세 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순자산(Net Worth)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이다. 순자산 - 주거자산(Home Equity) 변수는 순자산에서 주거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자기 주거자산을 매각하여 기본지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정하는 것은 지나 치다는 측면에서 제안되었다. 그리고 유동자산(Liquid assets) 변수는 현금이나 쉽게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자산변수 중 기본적으로 순자산의 개념을 이용하되 총자산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으로 부채가 총자산보다 더 클 경우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의 값이 (-)인 경우 이를 0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순자산의 값이 (-)인 경우 이를 그대로 이용하였을 때의 분석 결과도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자산빈곤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왔다. 한 가지 방식은 Haveman & Wolff(2001)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자산빈곤을 한 가구의 자산유형의 자원(wealth-type resources)에 대한 접근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욕구를 충족하는데 불충분한 경우로 보았다. 이들은 연구에서 자산 빈곤선을 소득 빈곤선 수준의 3개월분으로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 이 자산 빈곤선은 한 가구가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기본적 욕구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가정에서 설정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중위자산의 일정비율로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의 자산빈곤 연구들은 주로 이 방식을 이용하였다(이태진 외, 2005; 남상호, 2007; 강성민 2007). 본 연구에서는 Haveman & Wolff(2001)의 자산빈곤 정의를 따라 자산빈곤을 일정기간 동안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자산빈곤선을 최저생계비의 일정기간 해당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산빈곤선 설정에 있어서 또 다른 이슈로 동시적 측면에서 자산빈곤선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변동시킬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특정 시점에서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시적 측면에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자산빈곤선을 소득 빈곤선의 3개월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득빈곤선을 매년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설정한다면 상대적 자산빈곤선으로 설정될 것

1) 총자산은 비금융자산(주택 + 토지 + 건물 + 임야)과 금융자산(적립식저축액 + 목돈투자액 + 기타저축액 +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성되고, 부채는 금융기관대출, 비금융기관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갯돈 미불입금, 그리고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다. 자산빈곤선을 중위자산의 일정비율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특정 년도에서의 중위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자산액을 자산빈곤선으로 설정한다면 절대적 자산빈곤선으로 설정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빈곤선을 2005년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자산액으로 고정시켜 절대적 자산빈곤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빈곤지수(Poverty Index)로는 빈곤율(Poverty Rate or Head Count Ratio, H)을 이용한다. 자산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에서 자산빈곤선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가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 3. 자산빈곤의 요인분해 방법

두 시점 간의 자산빈곤의 변화를 성장과 불평등(재분배) 요소로 분해하기 위하여 Datt & Ravallion(1992)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Datt & Ravallion(1992)은 일정 시기 동안의 소득 빈곤의 변화를 소득수준의 성장에 따른 부분과 분배의 변화에 따른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이하 DR분해 방법으로 호칭). 이러한 빈곤 변화의 요인분해 방법은 역시 자산빈곤의 요인분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최초 시기를 기준으로 두 시점 간의 빈곤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P(\mu, D)$ 를 평균  $\mu$ 와 분배상태  $D$ 를 갖는 한 사회에서 측정된 빈곤이라고 하자. 두 시점 간의 빈곤에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P_2 - P_1 = [P(\mu_2 * D_1) - P(\mu_1 * D_1)] + [P(\mu_1 * D_2) - P(\mu_1 * D_1)] + residual$$

우변의 첫 번째 [ ]로 표시된 항은 성장요소(the growth component)로서 초기의 분배 상태를 똑같이 유지한 채 평균자산의 변화에 기인하는 빈곤의 변화 부분이다. 두 번째 [ ]로 표시된 항은 분배요소(the distribution component)로서 초기의 평균자산을 똑같이 유지한 채 분배상태의 변화에 기인하는 빈곤의 변화부분이다.

DR 분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P(\mu_2, D1)$ 과  $P(\mu_1, D2)$ 는 실제로 관측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들을 추정하여야 한다. 추정하는 방법은 모수적 방법(Parametric simulation)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simulation)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



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여  $P(\mu_2, D1)$ 과  $P(\mu_1, D2)$ 를 추정하여 빈곤의 변화를 성장요소와 분배 요소로 분해해 보고자 한다. 비모수적 방법에 따라  $P(\mu_2, D1)$ 는  $P(\mu_1, D1)$ 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소득에  $\mu_2/\mu_1$ 을 곱하여 추정될 수 있다.  $P(\mu_1, D2)$ 는  $P(\mu_2, D2)$ 로 시작하면서 모든 소득에  $\mu_1/\mu_2$ 을 곱함으로 추정된다. 추정된  $P(\mu_2, D1)$ 과  $P(\mu_1, D2)$ 를 이용하여 두 시점 간의 빈곤의 변화를 성장요소와 분배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

## IV. 분석결과

### 1. 자산 및 자산빈곤의 추세

#### 가. 자산 분포의 추세

먼저 1999년(노동패널 2차년도)부터 2008년(노동패널 11차년도)까지의 자산구성 요소별 평균값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의 이후 모든 분석 결과는 2005년도 물가 기준으로 조정된 자료에서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 분석된 것이다.<sup>2)</sup> <표 1>은 자산과 부채항목의 평균 가치들을 보여준다.<sup>3)</sup> 자산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간에 평균 금액들을 비교해 보면, 1999년의 경우 자가 주택의 평균가격이 약 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주택 외 부동산 1225만원, 전월세 보증금 1185만원, 그리고 예금 및 적금이 95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가장 커서 1277만원이었고, 그 다음이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611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평균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부동산 자산 중 자기는 1999년 5961만원에서 2008년 1억 2026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1186만원에서 1476만원으로 1.2배, 주택 외 부동산은 1225만원에서 4885만

2) 노동패널에서 가중치는 개인가중치와 가구가중치가 있다. 개인가중치의 경우 횡단가중치와 종단가중치가 분리되어 있으나 가구가중치의 경우 개인들의 종단가중치의 평균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중치를 이용하여 조사치수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표본소실 문제에 대응하였다.

3) 노동패널에서 자산항목에 대해 실제값을 보고하고 있으나, 응답자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범주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주형 응답의 경우 그 수도 작고 값을 부여함에 있어서 오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원으로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은행 예적금이 957만원에서 1255만원으로 1.3배, 주식, 채권, 신탁이 162만원에서 433만원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금융기관 부채가 1277만원에서 2367만원으로 1.8배 증가하였고, 전세, 임대보증금은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자산과 총부채, 순자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총자산과 총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의 경우 총자산이 9671만원, 총부채 2210만원, 그리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이 7978만원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에서 (-)의 값을 0으로 처리한 후에 순자산액은 8202만원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균금액의 변화를 보면, 총자산은 1999년도 9671만원에서 2008년도 1억 9819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1999년도 2210만원에서 2008년 3282만원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1999년도 7978만원에서 2008년도 1억 6853만원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순자산은 0으로 처리한 순자산은 1999년 8202만원에서 2008년 1억 7163만원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순자산의 증위값의 변화를 보면, 1999년 약 5000만원에서 2008년 약 7500만원으로 약 1.5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총자산 및 순자산의 평균액의 변화를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총자산과 순자산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과 순자산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8년 들어 증가세가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순자산의 평균값과 증위값 간의 격차가 지난 10년간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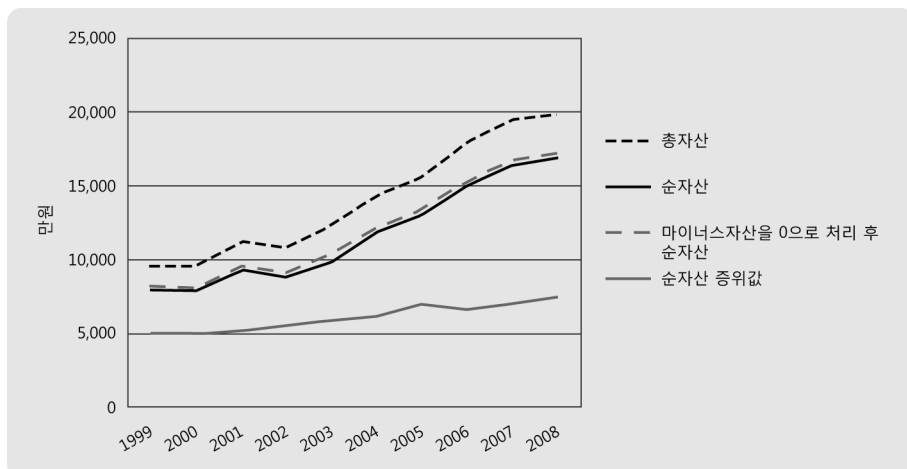
4) 순자산 중 음(-)의 값이 큰 경우 전체 순자산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그 결과 자산빈곤 변화의 요인분해에 있어서 성장요인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의 값을 갖는 순자산을 0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의 값을 갖는 순자산을 0으로 처리한 후에 전반적인 경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해에 있어서 음(-)의 값을 갖는 순자산을 이용하였다.

표 1. 자산 및 부채의 항목별 평균(1999~2008): 물가조정 후 각 년도 명목가치

(단위: 가구/만원)

구분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N	MEAN	
자산	부동산	자가	4194	5961	3960	5875	4007	6305	4044	6483	4429	8659	4630	9290	4708	9669	4878	10405	4966	11192	5083	12026
		전월세보증금	4420	1186	4181	1190	4173	1141	4216	1181	4556	1229	4740	1240	4825	1302	4973	1372	5058	1374	5111	1476
		주택 외 부동산	3840	1225	3671	1075	3632	1797	3639	1618	3889	1309	4213	2358	4353	3322	4512	4360	4576	5047	4557	4885
		주택 외 부동산보증금	4287	224	4027	343	4088	665	4201	362	4448	313	4656	302	4769	343	4862	296	4923	432	4997	314
	금융자산	예금, 적금	4489	957	4241	1046	4198	1149	4273	1287	4569	1332	4737	1367	4794	1467	4974	1431	5024	1465	5116	1255
		주식, 채권, 신탁	4504	162	4254	186	4237	209	4294	168	4582	152	4759	142	4847	143	4997	199	5061	325	5116	433
		저축성보험	4487	367	4250	294	4214	266	4286	171	4576	116	4752	80	4834	102	4988	108	5061	89	5116	158
		캐시	4505	18	4262	15	4235	26	4296	17	4583	22	4760	16	4845	20	5000	22	5068	17	5116	13
		빌려준돈	4507	106	4260	86	4238	112	4297	106	4582	116	4761	106	4844	99	5000	83	5068	58	5116	29
	기타자산	4506	9	4261	18	4185	27	4297	11	4576	47	4761	5	4810	71	4999	26	5063	29	5116	8	
부채	금융기관부채	4492	1277	4260	1199	4221	1163	4292	1488	4579	1686	4742	1838	4830	1864	4990	2032	5049	2309	5106	2367	
	비금융기관부채	4504	53	4266	51	4235	49	4296	44	4587	466	4758	38	4845	52	5001	53	5067	94	5116	41	
	개인적 빌린돈	4501	258	4264	204	4234	251	4296	177	4589	242	4752	210	4841	238	4997	195	5060	171	5114	154	
	전세/임대보증금	4501	611	4265	578	4226	577	4284	606	4589	747	4760	678	4846	824	4998	847	5068	894	5115	681	
	계부채	4505	5	4266	7	4235	5	4298	7	4590	8	4760	5	4847	6	5000	6	5068	5	5116	2	
	기타 부채	4506	15	4266	16	4182	13	4297	13	4591	20	4761	5	4849	2	4999	7	5069	34	5116	38	
총자산	3316	9671	3135	9591	3176	11174	3292	10832	3623	12281	3999	14307	4127	15635	4281	17903	4327	19456	4435	19820		
총부채	4477	2210	4259	2057	4145	2018	4273	2308	4573	2733	4733	2769	4820	2990	4982	3140	5042	3513	5104	3282		
순자산	3299	7978	3130	7896	3128	9277	3277	8787	3610	9872	3982	11835	4111	13082	4268	14938	4310	16364	4427	16853		
마이너스자산 0으로 처리 후 순자산	3299	8202	3130	8108	3128	9534	3277	9094	3610	10451	3982	12170	4111	13452	4268	15308	4310	16702	4427	17163		
순자산(중위값)	3299	4976	3130	4949	3128	5152	3277	5510	3610	5855	3982	6165	4111	7000	4268	6654	4310	6966	4427	7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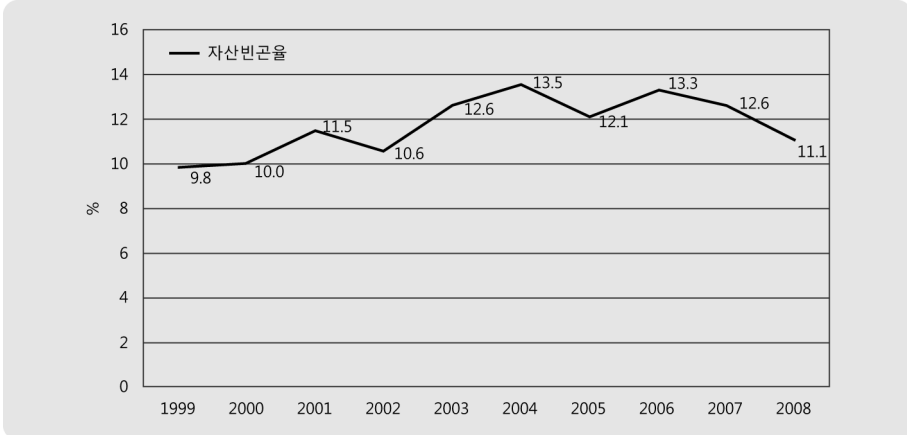
그림 1. 평균자산액의 추세



## 나. 자산빈곤의 추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2]는 2005년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3배로 설정된 절대빈곤선을 각 연도의 순자산에 적용해 본 결과이다. 자산빈곤율은 1999년 9.8%에서 시작하여 2004년 13.5%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004년 이후로 약간 감소하여 2008년 빈곤율이 11.1%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8년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9.8%에서 11.1%로 10년 간 자산빈곤율은 1.3%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 시기 평균 순자산액은 1999년 7978만원에서 2008년 1억 6853만원으로 2.1배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인 자산액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림 2. 1999~2008년 동안의 자산빈곤율 추이



이러한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자산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3]과 [그림 4]는 1999년과 2008년의 순자산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x축은 순자산액을, y축은 가구의 빈도를 나타내고, 실선 그래프는 1999년도의 자산 분포를, 점선 그래프는 2008년도의 자산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 1999년과 2008년의 순자산의 분포 비교: 마이너스 순자산 포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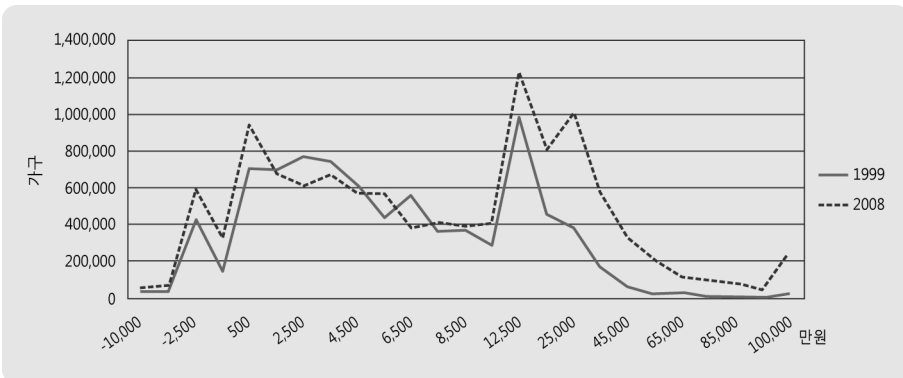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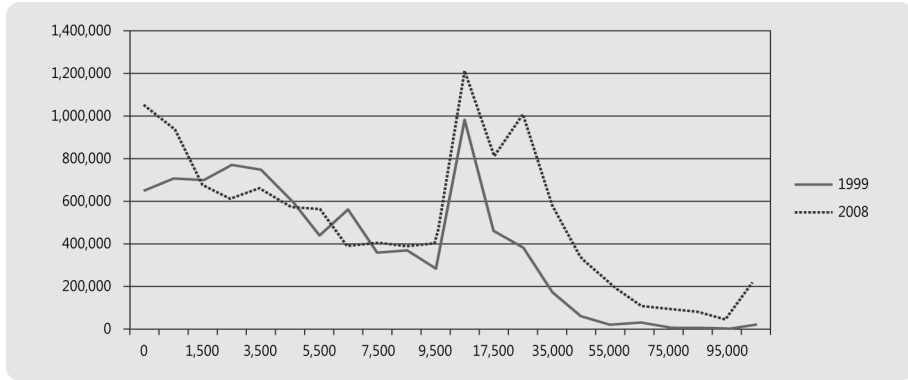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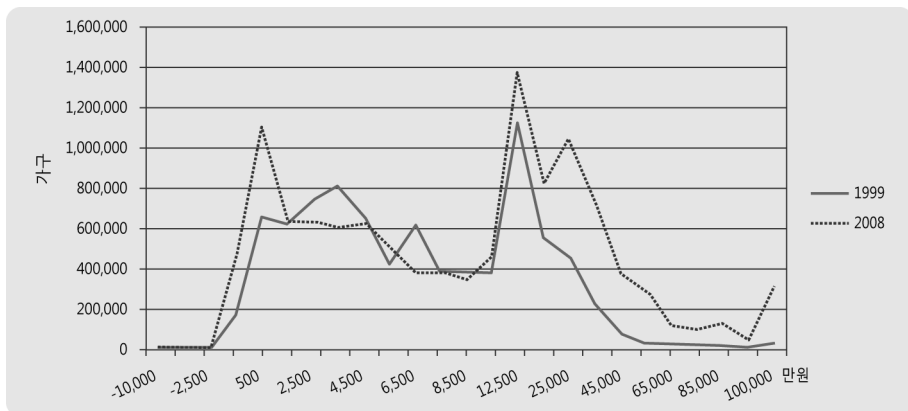
그림 4. 1999년과 2008년의 순자산의 분포 비교: 마이너스 순자산을 0으로 처리한 후



두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자산이 아주 적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가구들은 증가하고, 중간 범위의 자산을 가진 가구들의 수는 유사하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즉 두 그래프를 비교하여 보면, 중간 수준의 자산을 가진 가구들은 1999년과 2008년에 유사한 반면, 자산이 아주 작거나 또는 자산이 매우 많은 가구들의 빈도는 2008년도에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산의 불평등이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1999년과 2008년의 총자산의 분포를 그려보았다. [그림 5]에서 제시된 것

그림 5. 1999년과 2008년의 총자산의 분포 비교



처럼, 총자산의 분포도 순자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두 개 연도 비교 시 적은 자산을 가진 가구와 많은 자산을 가진 가구는 1999년에 비해 2008년에 더 많은 반면, 중간수준의 자산을 가진 가구 집단은 약간 감소하거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에 비해 2008년에 자산의 양극화 현상의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 2. 자산빈곤의 요인분해

### 가. 자산빈곤의 요인분해 결과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성장과 분배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해 보았다. <표 2>은 두 시점 간의 자산빈곤율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컬럼은 두 연도의 실제 빈곤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컬럼은 실제 빈곤율의 격차를 보여준다. 세번째 컬럼은 1999년의 분포에 2008년의 평균자산액 수준을 가지도록 조정 한 후의 추정빈곤율과 1999년 평균자산액 수준에서 2008년의 자산분포를 가지도록 조정 한 후의 추정 빈곤율을 보여준다. 네 번째 컬럼은 성장에 따른 빈곤 변화 부분과 분 배의 변화에 따른 빈곤 변화 부분을 보여준다.

표 2. 1999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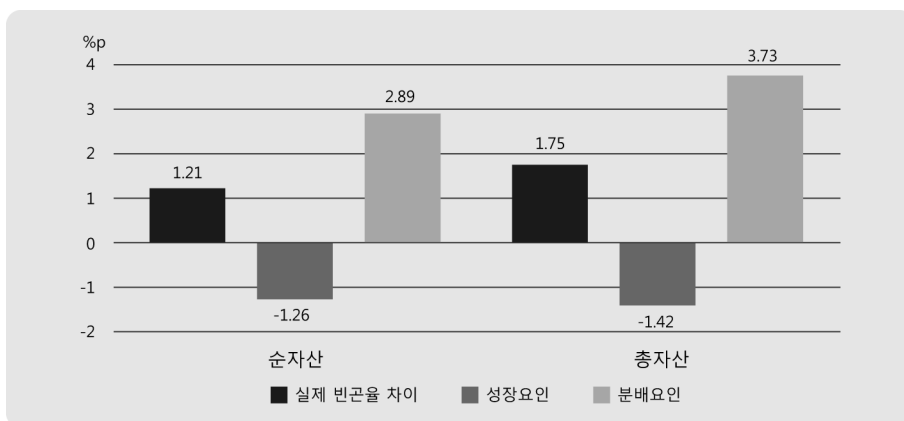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_{99})$	2008년 $P(t_{08})$		$P(\mu_{08}, D_{99})$	$P(\mu_{99}, D_{08})$	성장요인 $P(\mu_{08}, D_{99}) - P(\mu_{99}, D_{99})$	분배요인 $P(\mu_{99}, D_{08}) - P(\mu_{99}, D_{99})$	
순자산	9.84	11.05	1.21	8.58	12.73	-1.26	2.89	-0.42
총자산	4.17	5.92	1.75	2.75	7.90	-1.42	3.73	-0.56

순자산의 경우를 보면, 실제 순자산 빈곤율은 1999년 9.84%에서 2008년 11.05%까지 1.21%포인트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산빈곤율 증가는 이 기간 동안의 성장요인을 고려하면 1.26%포인트만큼 자산빈곤율이 감소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배요인의 측면이 2.89%포인트만큼 자산빈곤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자산 빈곤율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분배 불평등 증가에 따른 빈곤 증가 부분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따른 빈곤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순자산빈곤율의 증가는 자산 분배 불평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총자산의 경우 총자산빈곤율은 1999년 4.17%에서 2008년 5.92%로 1.75%포인트만큼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산빈곤의 증가는 성장 요인이 총자산빈곤율을 1.42%포인트만큼 감소시켰을 것임에도 분배 요인이 자산빈곤율을 3.73%포인트만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는 총자산빈곤율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기간 동안의 총자산빈곤율의 증가 역시 분배 악화에 따른 빈곤증가 효과가 성장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를 압도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6]와 같다.

그림 6. 1999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 분해



그런데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은 설정한 빈곤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빈곤선을 상향 조정하면 후에 요인 분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12배로 확대시켜 빈곤율을 산출하고, 이를 성장요인과 분배요인으로 분해 해 보았다. <표 3>은 그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순자산의 실제 빈곤율은 1999년 16.89%에서 2008년 16.15%로 0.74%포인트만큼 감소되었다. 요인분해 결과 이 기간 동안의 자산빈곤율 감소는 성장으로 인해 5.09%포인트만큼 감소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배요인으로 인하여 6.29%포인트만큼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0.74%포인트만큼 자산빈곤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빈곤율은 1999년 10.07%에서 2008년 11.89%로 1.82%포인트만큼 증가



하였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에 의한 빈곤율 감소가 3.96%포인트만큼 있었을 것임에도 분배 요인이 8.46%포인트만큼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는 빈곤율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순자산과 총자산 모두에 있어서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자산 빈곤은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율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분배 불평등의 증가에 의해 전체적으로는 자산빈곤율이 대체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 요인 분해: 12배 빈곤선 적용 시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99)$	2008년 $P(t08)$	$P(t08) - P(t99)$	$P(\mu08, D99)$	$P(\mu99, D08)$	성장요인 $P(\mu08, D99) - P(\mu99, D99)$	분배요인 $P(\mu99, D08) - P(\mu99, D99)$	
순자산	16.89	16.15	-0.74	11.80	23.18	-5.09	6.29	-1.94
총자산	10.07	11.89	1.82	6.11	18.53	-3.96	8.46	-2.68

#### 나. 소득빈곤의 요인분해 결과와의 비교

자산 빈곤의 분석결과가 소득 빈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소득빈곤율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성장과 분배 요인으로 분해해 보고자 한다. 소득빈곤율과 평균총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었고 2005년도 물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빈곤 기준선은 2005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였다.

<표 4>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 빈곤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평균총소득은 1999년 172.4만원에서부터 2008년 276.3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99년도 평균소득에 비해 1.6배가량 증가한 액수이다. 소득빈곤율은 1999년 31.66%에서 시작하여 2008년 14.36%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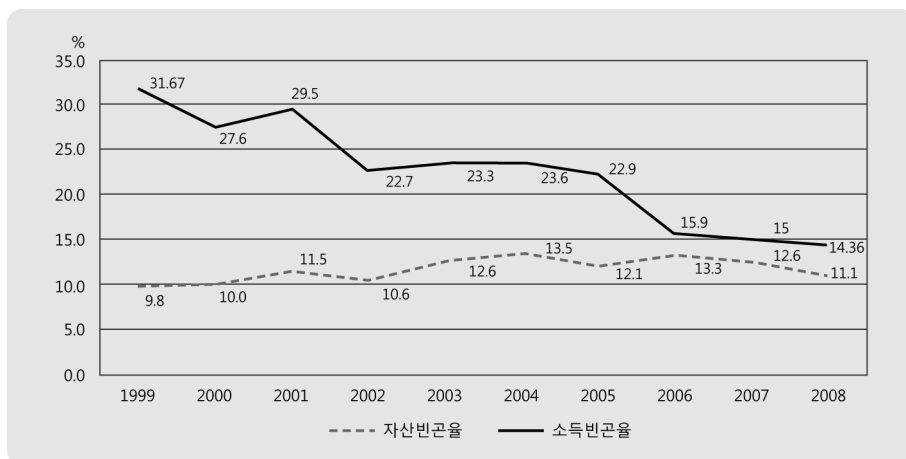
5)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에 있어서 전체 빈곤율 변화는 성장요인, 분배요인, 그리고 잔차의 부분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이 세가지 부분을 합하여 전체 빈곤율은 0.74% (= -5.09+6.29-1.94) 포인트만큼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1999~2008년 동안의 소득 빈곤율의 추세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소득 (만원)	172.4	183.2	189.7	229.7	227.5	235.2	243.1	260.4	274.1	276.3
빈곤율 (%)	31.66	27.55	29.5	22.65	23.52	23.63	22.22	15.92	15.04	14.36

같은 기간 자산빈곤율과 소득빈곤율의 변화는 서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그림 7]에서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선으로 표시된 소득빈곤율은 상당한 비율로 감소하는 반면 점선으로 표시된 자산빈곤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득의 빈곤율은 감소되는 가운데 자산빈곤율은 증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림 7. 자산 및 소득 빈곤율 추세 비교



1999년과 2008년 간 소득빈곤율의 차이를 성장과 분배 요인으로 요인분해하여 보았다. <표 5>는 그 요인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 소득빈곤율은 1999년 31.66%에서 2008년 14.36%까지 17.3%포인트만큼 감소하였다. 그 중 성장 요인에 의해 12.4%포인트만큼 소득빈곤율이 감소하고 이에 더하여 분배요인에 의해 2.16%포인트만큼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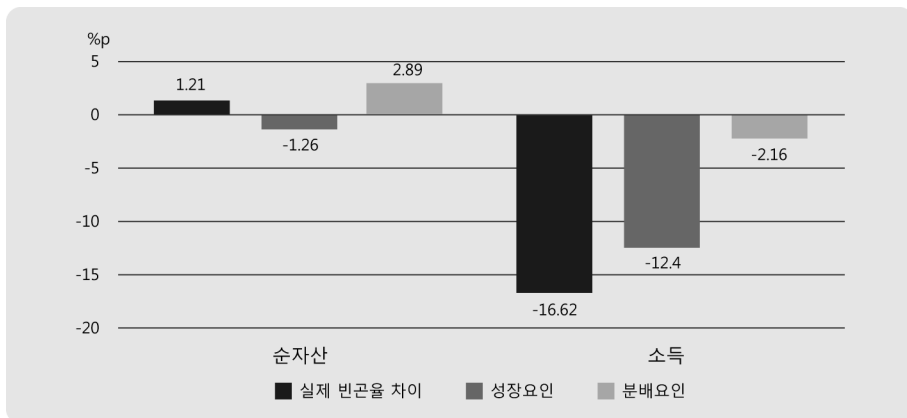
빈곤율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이 기간 동안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 소득빈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의 크기가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보다 더 컸다.

순자산과 소득에 있어서의 빈곤 변화의 요인분해 결과를 비교 해 보았다. [그림 8]에서 제시된 것처럼, 순자산의 경우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증가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자산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의 경우에는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 전체 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빈곤의 변화와는 반대로 자산빈곤의 경우에는 자산 분배 악화로 인해 자산빈곤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1999과 2008년 간의 소득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_{99})$	2008년 $P(t_{08})$		$P(\mu_{08}, D_{99})$	$P(\mu_{99}, D_{08})$	성장요인 $P(\mu_{08}, D_{99}) - P(\mu_{99}, D_{99})$	분배요인 $P(\mu_{99}, D_{08}) - P(\mu_{99}, D_{99})$	
총소득 빈곤율 (%)	31.66	14.36	-17.3	19.18	28.73	-12.48	-2.93	-1.89

그림 8. 순자산과 소득의 빈곤율 변화 요인 분해



### 3. 하위집단별 자산빈곤의 추세 및 요인분해 결과

지금까지 한국 전체에 있어서 자산 빈곤의 추이를 살펴보고 자산빈곤의 변화를 성장과 분배에 따른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제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자산빈곤의 변화를 요인분해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집단을 거주 지역,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가. 지역별

지역별로 평균 순자산액과 자산빈곤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그림 9], [그림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 가구들의 평균 순자산액은 1999년 약 8천만원에서 시작하여 2002년 한 차례의 감소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여 2008년 약 1억7천만원으로 약 2배만큼 증가하였다. 중소도시의 평균 순자산 역시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0년 간 약 2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의 평균 자산은 1999년 9천만원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높았으나 이후 소폭의 증감을 보이다 2008년 약 1억 2천만원으로 1999년에 비해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평균자산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7년과 2008년의 빈곤율이 이전 연도들에 비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의 9.2%와 비교하여 10년간 1.5%포인트만큼 자산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1999년에 10.2%로 대도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4.3%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11.7%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5%포인트만큼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1999년에 약 20%의 높은 빈곤율로 출발하여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2008년까지 7.9%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즉, 대도시의 자산빈곤율은 항상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중소도시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자산빈곤율이 높았으며 점차 감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간의 빈곤율 격차는 초기에 컸지만 2008년에는 거의 유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에 평균소득의 격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의 지역 간 격차는 감소되었다는 것은 특이하다. 이는 아마도 평균자산의 경향과 자산분배의 경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 지역별 평균 순 자산액 및 빈곤율 추이

(단위: 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순자산	대도시	8323.9	8413.5	9496.9	9183.0	10905.4	12454.1	13438.6	15422.4	16650.8	17632.6
	중소도시	7978.7	7793.8	9754.1	9091.2	10329.5	12080.5	13797.0	15638.2	17151.2	16903.0
	농어촌	9099.2	6717.1	6118.1	7028.0	8068.9	9219.8	8459.4	10018.0	9081.3	11630.1
빈곤율	대도시	9.16	9.18	11.13	10.06	11.7	12.96	11.8	12.83	11.05	10.66
	중소도시	10.24	10.58	11.66	11.25	13.73	13.92	12.3	14.04	14.29	11.73
	농어촌	19.7	20.51	13.78	11.79	15.51	18.56	14.84	11.44	14.72	7.89

그림 9. 지역별 평균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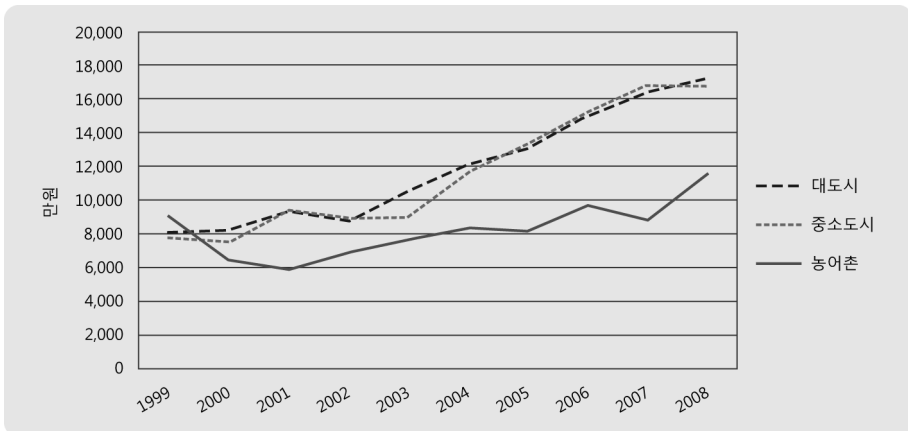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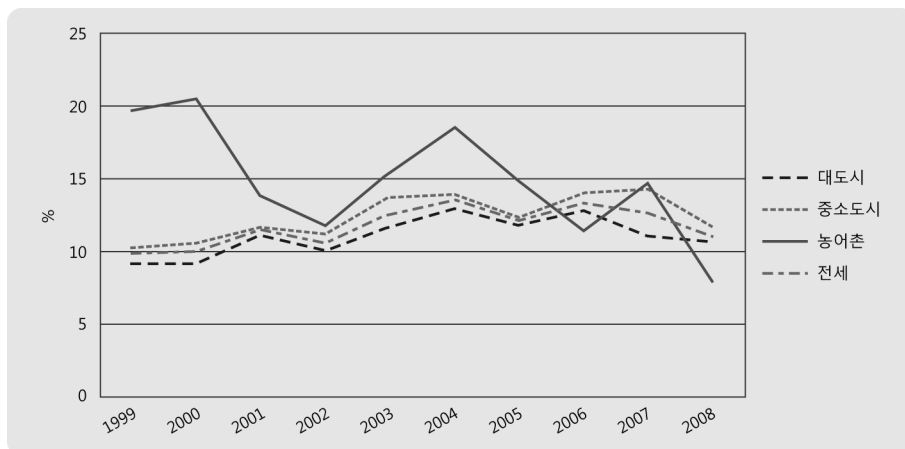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별 빈곤율 추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성장요인과 분배 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자산빈곤율이 1.5% 포인트 증가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자산빈곤율이 약 11.8% 감소하였다. 이러한 10년간의 지역별 자산빈곤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효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분배 불평등 증가에 따른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자산빈곤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자산빈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 효과와 함께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산빈곤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러한 분석 결과는 평균자산의 도농 간 격차확대에 따른 도농 간 자산불평등 확대 문제와 함께 도시내부의 분배 악화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6) 농어촌에서 자산빈곤율이 개선되는 것은 도시지역과 달리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한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적은 젊은 층의 도시 이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인 노인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자산가치 급등에 따른 자산불평등 문제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지역별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 1999년과 2008년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_{99})$	2008년 $P(t_{08})$	$P(t_{08}) - P(t_{99})$	$P(\mu_{08}, D_{99})$	$P(\mu_{99}, D_{08})$	성장요인 $P(\mu_{08}, D_{99}) - P(\mu_{99}, D_{99})$	분배요인 $P(\mu_{99}, D_{08}) - P(\mu_{99}, D_{99})$	
대도시	9.16	10.66	1.5	7.77	12.58	-1.39	3.42	-0.53
중소도시	10.24	11.73	1.49	9.3	13.23	-0.94	2.99	-0.56
농어촌	19.70	7.86	-11.84	17.93	7.86	-1.77	-11.84	1.77

### 나. 가구주 성별

가구주 성별로 평균 순자산과 자산빈곤율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표 8>과 [그림 11] 및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남성 가구주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8796만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 약 1억 9천만원으로 1999년의 2.2배 만큼 증가하였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평균 순자산액은 1999년 4752만원에서 2008년 약 1억600만원으로 2.3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 평균 자산의 절대적 금액의 차이는 1999년보다 더 커졌다.

자산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10년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높았고 그 격차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되다가 2007년 이후 약간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과 2008년의 자산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 빈곤율은 8.8%에서 9.9%로 1.1%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약 16%에서 15.4%로 0.6%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8. 가구주 성별 평균 순자산액 및 빈곤율 추이

(단위: 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순자산	남	8796.6	8657.7	10320.9	9857.6	11533.7	13329.8	14938.0	17125.4	18337.9	18799.5
	여	4752.0	5030.4	5055.1	4837.1	6160.8	6845.8	6974.1	7822.5	9519.6	10661.1
빈곤율	남	8.79	9.37	10.66	9.76	11.67	12.48	10.89	11.93	11.82	9.93
	여	15.95	13.46	15.94	14.97	17.07	18.53	17.48	19.1	15.88	15.4

그림 11. 가구주 성별 평균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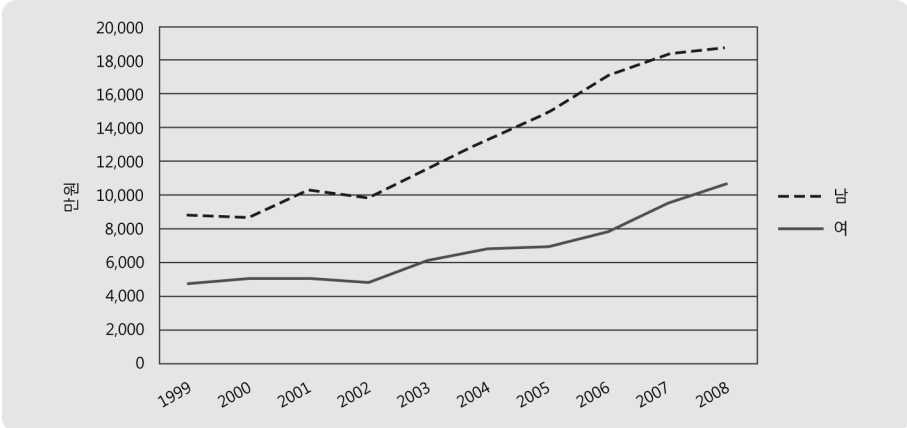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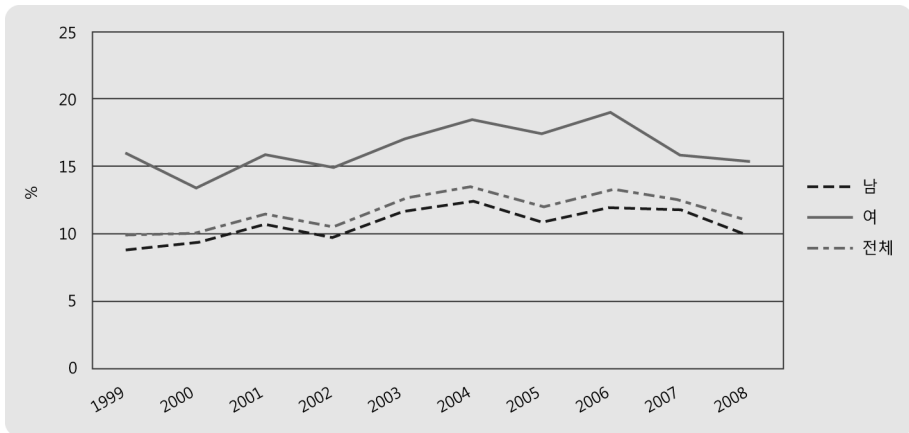


그림 12. 가구주 성별 빈곤율 추이



<표 9>는 가구주 성별로 1999년과 2008년 간 자산빈곤율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집단 모두에서 성장요인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분배요인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자산규모가 더 큰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의 효과가 작았으며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증가가 커서 전체로는 빈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증가효과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성장요인의 빈곤감소효과는 여성가구주 가구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분배악화에 의한 빈곤증가효과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으나 그 크기가 남성가구주 가구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 가구주 성별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 1999년과 2008년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99)$	2008년 $P(t08)$		$P(\mu08, D99)$	$P(\mu99, D08)$	성장요인 $P(\mu08, D99) - P(\mu99, D99)$	분배요인 $P(\mu99, D08) - P(\mu99, D99)$	
남	8.79	9.93	1.14	7.91	11.62	-0.88	2.83	-0.81
여	15.95	15.4	-0.05	12.47	17.45	-3.48	1.5	1.43

#### 다. 가구주 교육수준별

<표 10>과 [그림 13] 및 [그림 14]는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순자산액과 빈곤율의 추이를 보여준다. 고졸 미만, 고졸, 그리고 초대졸의 세 교육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순자산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 모두의 평균 자산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졸미만의 경우 평균자산액이 1999년 6622만원에서 2008년 1억1006만원으로 1.67배 증가하였고, 고졸의 경우 7524만원에서 1억 5123만원으로 약 2배로 증가하였으며, 초대졸 이상의 경우 1억 2189만원에서 2억4697만원으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평균 순자산액의 추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순자산액이 작은 고졸미만 집단의 자산증가율이 가장 낮아서 교육수준별 자산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산 빈곤율의 추이를 보면, 세 집단 모두에서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연도별 추세에 있어서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빈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 이후 약간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 집단 간에는 고졸미만의 경우 자산빈곤율이 1999년 10.22%에서 2008년 13.72%로 3.5%포인트만큼 증가하였다. 고졸의 경우 9.8%에서 13.04%로 3.24%포인트만큼 증가하였다. 그리고 초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5.2%에서

7.41%로 2.21%포인트만큼 증가하였다.

표 10.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 순자산액 및 빈곤율 추이

(단위: 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순자산액	고졸미만	6621.8	6468.6	7322.0	6734.4	7006.0	8560.9	10122.8	10580.1	11104.2	11005.6
	고졸	7524.2	7704.4	8884.9	8352.4	10620.8	11707.3	12466.7	13736.0	14803.2	15122.8
	초대졸이상	12189.0	11491.4	14215.8	13904.5	15625.2	17306.2	18455.5	22411.8	24190.3	24697.3
빈곤율	고졸미만	10.22	10.85	13.18	13.48	14.73	15.51	13.85	16.45	15.19	13.72
	고졸	9.8	10.32	12.22	10.81	14.55	15.67	14.87	16.11	14.61	13.04
	초대졸이상	5.2	8.29	8.02	6.37	7.79	9.16	7.64	7.82	8.72	7.41

그림 13. 가구주 교육수준별 평균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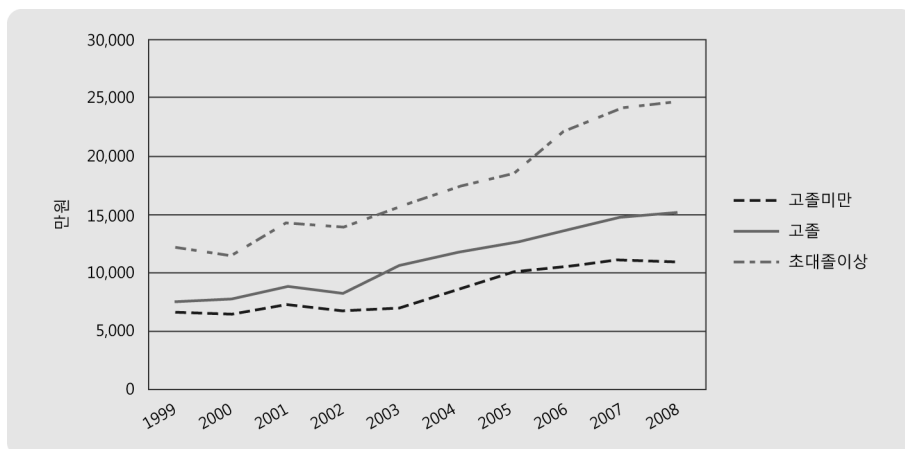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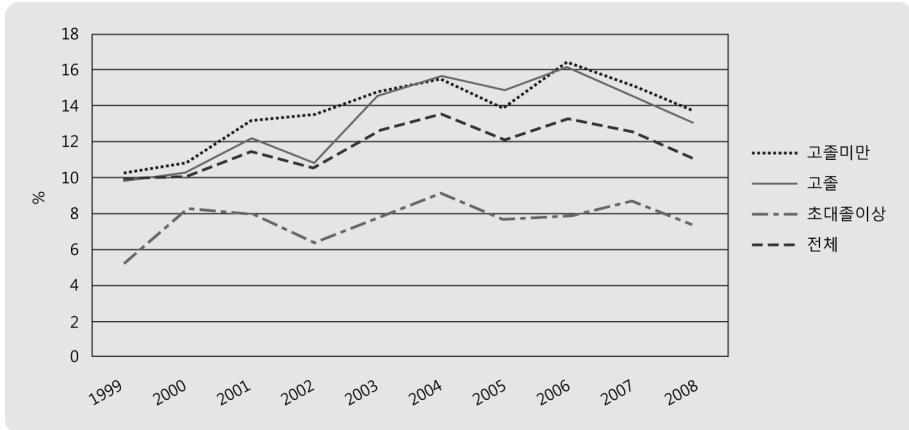


그림 14. 가구주 교육수준별 빈곤율 추이



<표 11>은 1999년과 2008년 간 자산빈곤율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를 제시한다. 세 집단 모두에서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고졸 미만 집단의 경우 그 효과가 가장 크고 초대졸 이상 집단의 경우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집단 모두에서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집단 모두에서 자산 분배 불평등의 악화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율 증가 효과가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율 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빈곤율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각 교육집단 내에서의 자산분배 불평등의 증가가 자산빈곤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제시한다.

표 11.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 1999년과 2008년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_{99})$	2008년 $P(t_{08})$		$P(\mu_{08}, D_{99})$	$P(\mu_{99}, D_{08})$	성장요인 $P(\mu_{08}, D_{99}) - P(\mu_{99}, D_{99})$	분배요인 $P(\mu_{99}, D_{08}) - P(\mu_{99}, D_{99})$	
고졸미만	11.8	13.72	1.92	10.3	15.65	-1.5	3.85	-0.43
고졸	10.91	13.04	2.13	9.8	15.31	-1.11	4.4	-1.16
초대졸 이상	5.47	7.38	1.91	5.29	8.02	-0.18	2.55	-0.46

## 라. 가구주 고용지위별

가구주의 고용지위에 따른 평균 순자산액과 자산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2> 및 [그림 15], [그림 16]과 같다. 평균 순자산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주 집단의 자산액이 가장 높고 비상용임금노동자 집단의 평균 자산액이 가장 낮으며, 상용임금노동자 집단과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의 자산액이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집단들에서 평균자산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상 지위가 높은 집단들의 평균자산액 증가가 고용상 지위가 낮은 집단들의 평균자산액 증가보다 더 커서 집단들 간의 격차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산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06년까지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999년에 비해서는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상용임금노동자 집단의 경우에는 자산빈곤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

표 12. 가구주의 고용지위별 평균 순자산액 및 빈곤율 추이

(단위: 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자산 액	고용주 및 자영업	9413.4	9723.5	11520.6	10871.6	13990.3	15740.0	18529.0	21807.4	24099.7	21929.7
	상용 임금노동자	8472.5	8425.7	9329.7	9044.8	11022.9	12428.9	12860.8	13410.5	15294.1	17291.4
	비상용 임금노동자	4475.9	4354.6	5704.8	5772.3	5347.0	6021.2	5962.1	7074.5	7702.9	8053.0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 사자	8589.1	7956.1	9735.9	9116.2	9392.8	11364.8	12745.4	16550.5	16586.7	16873.2
빈 곤 율	고용주 및 자영업	10.88	11.18	14.11	10.8	13.67	11.23	11.39	13.08	10.12	10.37
	상용임금노 동자	5.76	6.82	8.13	7.25	9.22	9.95	9.11	9.91	10.35	7.25
	비상용 임금노동자	16.1	17.24	14.24	12.46	18.84	23.97	21.54	20.1	18.35	15.74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 사자	11.69	10.88	13.18	14.71	14.1	15.69	13.02	15.84	15.21	15.34

그림 15. 가구주 고용지위별 평균순자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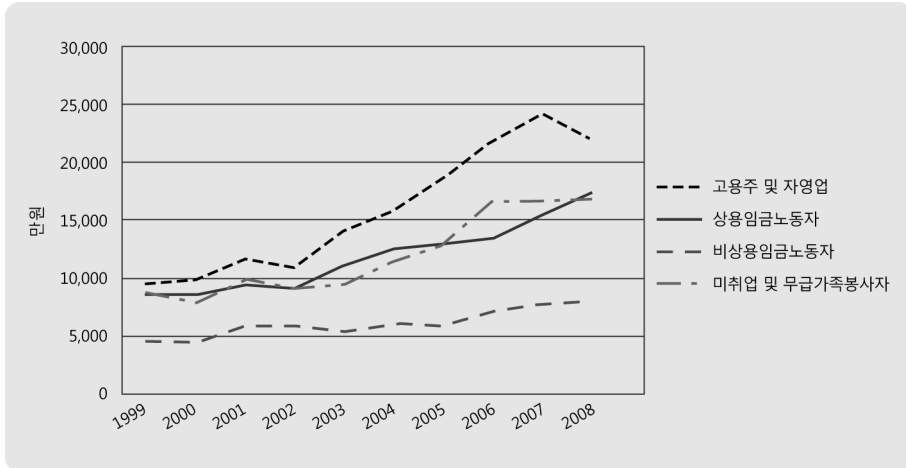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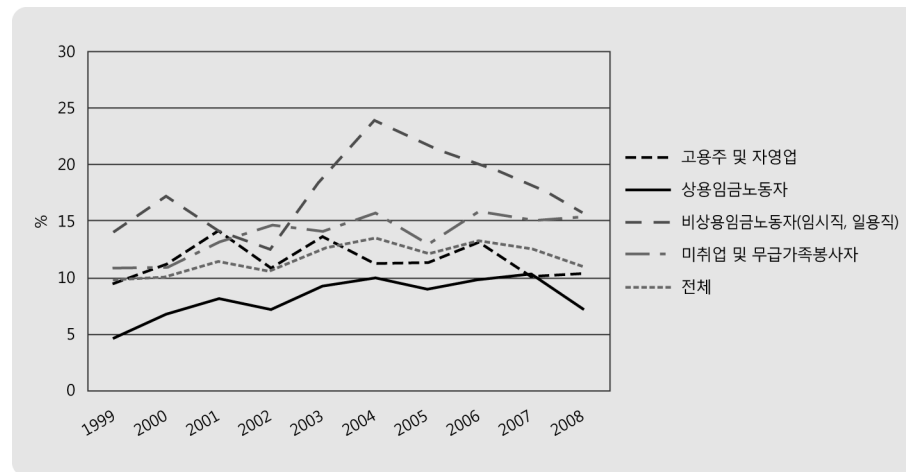


그림 16. 가구주 고용지위별 빈곤율 추이



<표 13>은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 변화를 가구주의 고용지위별로 요인 분해 한 결과를 제시한다. 모든 하위집단에서 성장요인은 자산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요인의 자산빈곤율 감소효과는 비상용임금근로자 가구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에서 분배요인은 자산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율 증가 효과는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가구의 경우 가장 컸으며, 고용주 및 자영업 집단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네 집단 모두에서 성장요인은 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분배요인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고용주 및 비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성장요인의 빈곤감소 효과가 분배요인의 빈곤 증가효과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빈곤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와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성장요인보다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 증가 효과가 더 커 전체적으로는 빈곤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구주의 고용지위별 자산빈곤율 변화의 요인분해: 1999년과 2008년

구분	실제빈곤율 (%)		격차 (%p)	추정빈곤율 (%)		빈곤요인 (%p)		잔차
	1999년 $P(t_{99})$	2008년 $P(t_{08})$		$P(\mu_{08}, D_{99})$	$P(\mu_{99}, D_{08})$	성장요인 $P(\mu_{08}, D_{99}) - P(\mu_{99}, D_{99})$	분배요인 $P(\mu_{99}, D_{08}) - P(\mu_{99}, D_{99})$	
고용주 및 자영업	10.88	10.37	-0.51	9.58	11.58	-1.3	0.7	0.09
상용임금노동자	5.76	7.25	1.49	4.71	8.96	-1.05	3.2	-0.66
비상용 임금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16.1	15.74	-0.36	14.07	18.78	-2.03	2.68	-1.01
미취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11.77	15.34	3.57	10.94	16.92	-0.83	5.15	-0.75

이상에서의 하위집단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 빈곤감소 효과가 발생한 반면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발생되었다.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효과에 있어서, 고자산 집단들의 경우 평균자산액의 증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저자산 집단들의 경우 평균자산액의 증가는 고자산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평균자산액의 증가가 고자산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됨으로써 하위집단들 간의 자산격차가 증가되고 저자산 집단들에서의 자산빈곤 감소효과가 제한되어,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의 감소효과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배요인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자산 집단뿐만 아니라 저자산 집단 내에서도 가구 간의 자산 불평등이 악화되어 빈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농어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 집단들에 있어서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내 자산격차 증가에 따른 자산빈곤 증가 현상이 거의 모든 하위집단들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평균자산의 증가는 주로 자산빈곤 감소효과가 적은 고자산 집단에서 더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 효과가 제한된 한편, 저자산 집단을 포함하여 각 하위 집단 내에서의 자산분배 불평등이 확대되어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위집단들에서 자산빈곤이 증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년)부터 11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자산빈곤 변화에 대한 요인 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의 우리나라 평균자산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자산빈곤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2008년간의 자산빈곤 차이를 요인분해 해 본 결과, 성장요인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분배요인에 의한 빈곤증가 현상이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자산빈곤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기에 소득빈곤의 경우 성장요인과 분배요인 모두 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소득빈곤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경우와 달리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자산빈곤의 증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위집단별로 자산빈곤을 보다 세분화 하여 살펴본 결과, 평균자산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성장에 따른 자산빈곤감소 효과가 적은 고자산 집단에서 더 급속하게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리고 분배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증가 효과가 저자산 집단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하위집단에서 발생하여 자산분배 악화에 따른 자산빈곤 증가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체적인 자산수준의 상승 속에서도 절대적 자산빈곤의 수준이 증가되어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의 증가 속에서 절대적 측면의 자산빈곤층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소득 빈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독 자산빈곤이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자산빈곤의 심각성을 제시한다. 특히 자산빈곤의 증가가 성장요인에 의한 자산빈곤 감소 측면에도 불구하고 자산분배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자산분배의 악화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이 급등하면서 근로 이외의 수단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계층들의 자산증식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자산이 낮은 계층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들의 과도한 자산 투자를 부추긴다. 그 결과 빈곤한 개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투자 실패 시 신용불량자로 몰락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는 대부분 재산기준을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들의 자산형성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여 왔다.

이는 자산 빈곤층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정책과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자산 대여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자산빈곤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자산불평등의 통제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산의 증여나 상속 그리고 자산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하여 과도한 자산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투기에 대한 보상보다 근로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더 크도록 하는 전반적 사회 정책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강성민(2007). 노동패널을 통해 본 자산빈곤의 동태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권순원, 고일동, 김관영, 김선웅(1992).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영(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17(1), pp.47-74.
- 남상호(2009).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_\_\_\_\_(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527-556.
- \_\_\_\_\_(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분과 발표논문.
- 석상훈(2010). 자산빈곤과 빈곤지속. 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245-261.
- 이정우, 이성림(2001).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전승훈, 임병훈(2008). 2000년 이후 가구 자산구성 및 자산불평등도의 변화 분석. 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Caner, A., Wolff, E.(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4), pp.493-518.
- Datt, G., Ravallion, M.(1992). Growth and Redistribution Components of Changes in Poverty Measures. *Journal of Developmental Economics*, 38, pp.275-295.
- Haveman, R., Wolff, E.(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2-1998*. IRP Discussion Paper no. 1227-01. Madison,

WI: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Wolff, E.(1996).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Wealth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2(4), pp.433-451.

이상은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이며, 복지의식과 다차원적 빈곤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salee@ssu.ac.kr)

이은혜는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이다. (E-mail: karis\_ehyi@ssu.ac.kr)

정찬미는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 및 가족정책이다. (E-mail: ehdrnr40@nate.com)

# Trend and Decomposition of Asset Poverty in Korea

**Lee, Sangeun**  
(Soongsil University)

**Yi, Eunhy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Jung, Chanmi**  
(Soongsil University)

---

Over the past ten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 surge in asset values and has become to face the problem of asset equity. However, people's concern surrounding asset has been concentrated on those with large amounts of asset. There has been less concern on those with little or no asset and on the trend of asset poverty. Using the 2nd to 11th wav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assetpoverty in Korea from 1999 to 2008 and also tried to decompose the change of poverty into the parts due to growth and distribution, using Dart and Ravallion(1992)'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sset poverty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verage amount of households' asse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for the last ten years. The decomposition results on the change of poverty rate between 1999 and 2008 showed that the growth facto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asset poverty while the distribu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asset poverty. Overall the distribution factor dominated the growth factor so that the asset poverty rate has increased during the ten years.

---

**Keywords:** Asset Poverty, Income Poverty, Decomposition, Growth, Distribution, Inequality